

화학으로 만드는 미래의 꿈

화학 산업은 기초 소재 산업으로서 우주, 환경, 대체에너지 등 첨단 산업과 연계한 개척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빠르게 발전해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화학 산업을 이끌 미래의 인재가 중요한 이유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도전해보자.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

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과학
대회

REPORTER'S TIP

탐구 주제는 평소 궁금했거나 탐구해보고 싶었던 내용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너무 광범위한 주제보다는 좁고 깊이 있는 주제가 좋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슈로 '생명' 관련 주제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실제 지난 대회 대상을 차지한 충북과학고 팀의 '간이 진단 마스크'나 장관상을 수상한 청심국제고 팀의 '항박테리아 필름 및 살균 제품 유효기간 진단 키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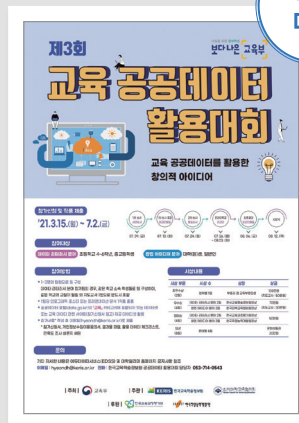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외
대상 고
접수 4월 1일~4월 30일
홈페이지 ilovechem.kr



화학 '쫄' 아는 고등학생이라면 도전! 2021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

'2021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 대회는 학생 주도형 탐구 실험 프로그램으로, 고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화학 관련 자유 주제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면 지도교사 1명과 학생 2명으로 팀을 구성해 탐구 제안서를 작성,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총 60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하며, 본선 진출팀은 8월 21일 열리는 본선 대회에서 그간 탐구해온 결과를 발표한다. 은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8박 10일간의 유럽 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진로
대회



주최 교육부
대상 초4~고
접수 7월 2일까지
홈페이지 keris.or.kr

교육 문제 해결사는 바로 내! 제3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들의 데이터 해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3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가 개최된다.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데이터 리터러시'와 '창의 아이디어'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 가능하며, 3명 이내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 포스터 또는 프레젠테이션 양식 한 작품을 포함해 참가 서류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REPORTER'S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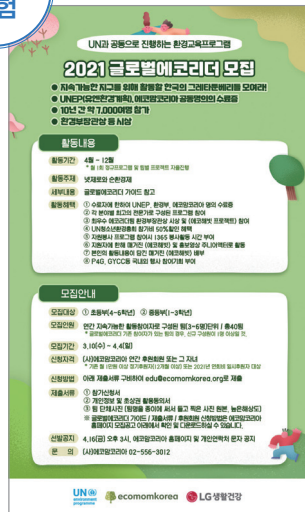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리터러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자. 지난 대회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는 모두 초등학교생이었다. 최우수상 수상작은 '학교 일리미'에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해 지역·학교별로 보건교사 배치율을 분석, 학교 보건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홈페이지 대회 안내 페이지에서 지난 대회 수상작품집을 내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할 것.

3.25~4.7 MAR 2021

환경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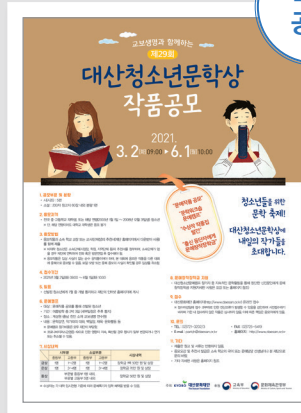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를
꿈꾼다면?
2021 글로벌에코리더 모집

에코맘코리아는 UN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2021 글로벌에코리더'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넷제로(탄소중립)와 순환경제'를 주제로, 제품의 생애 주기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는 각종 환경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원 봉사 프로그램 참여 시 봉사 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3~6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최 에코맘코리아
대상 초·4~중
접수 4월 4일까지
홈페이지 ecomomkorea.org

문학
공모



주최 대산문화재단
대상 중·고
접수 6월 1일까지
홈페이지 daesan.or.kr

작가와 함께하는 문예 캠프 기회까지!
제29회 대산청소년문학상 작품공모

대산문화재단은 우리 문학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29회 대산청소년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소설과 시 부문에서 중·고등부로 나눠 수상 후보 80명을 1차 선별한 뒤, 여름방학 중 사흘간 문예 캠프와 백일장을 열어 최종 수상자를 뽑는다. 수상자는 장학금과 함께 대학별 입시 전형 기준에 따라 문예 특기자 입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응모작과 학교장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5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 60장 내외 분량 1편이다.

전시
공연



장소 송파책박물관
기간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bookmuseum.go.kr

한국 교육 130년을 한눈에
〈교과서, 우리들의 이야기〉 특별전

송파책박물관은 조선 말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교과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과서, 우리들의 이야기〉 특별전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교과서와 성적표, 중학교 무시험 추첨기 등 150여 점의 자료를 통해 한국 교육 1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다. 전시 해설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사 스타 강사 최태성이 녹음한 전시 해설을 들으려면 스마트폰과 이어폰은 필수!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HOT CLIP



상영
위탁터
유튜브 채널

내 아이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10대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카운셀링〉

교육부와 열린사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 영상. 양육 과정 혹은 자녀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신 건강 전문의의 솔루션을 담았다. '사춘기,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소아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등 학부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의 강연을 골라 들을 수 있다. 10대 자녀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바로 영상 플레이! @

